

북한이탈주민의 귀인 양식: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채 정 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귀인 양식을 좀 더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만화형 귀인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 61명과 남한주민을 68명을 포함하여 총 129명이었다. 연구 결과, 양측 주민들 간의 귀인 양식 면에서 유사한 점과 상이한 점이 동시에 드러났다. 즉, 양측 주민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형태에 대해 대체로 내부 귀인을 많이 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남한주민이 내부 귀인 경향을 많이 보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통제가능 통제불가능 귀인 차원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안정-불안정 귀인 차원에서는 남한주민은 안정 귀인을, 북한 이탈주민은 불안정 귀인을 주로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상의 차이는 다양한 속성의 시나리오에서 상당히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남한출신인가 북한 출신인가에 따라서 양측 주민 간의 귀인 양식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개인의 겸증된 능력과 속성에 대해서도 이주(migration)와 같이 상황이 달라지면 그 능력과 속성의 영향력이 낮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만족도와 귀인 양식의 관련성이 남한주민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주요어 : 문화, 심리적 적응, 북한이탈주민, 귀인, 통일

* 본 연구는 2004년도 고려대학교 박사후과정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 교신저자 : 채정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전화 : 02-3290-1636, E-mail : minspin@unitel.co.kr

단순히 60여 년 동안 분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호 대립과 전쟁을 경험한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통일을 이룬다고 해도 많은 문제를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들 논의의 핵심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상호간 접촉 → 이해 → 수용’의 3단계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1994년 남한이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 1980년 북한이 제시한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그리고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공동선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독일의 사례를 보거나 통일에 대해 좀 더 통찰력 있는 사고를 한다면 여기에 ‘후유증 관리’라는 단계를 맨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4단계론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서독의 풍요가 단 4년 만에 이룩되지 않았음을 동독인들이 이해할 때, 그리고 동독인들은 서독 수준에 이르기까지 40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서독인들이 이해할 때 비로소 심리적 통일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콜 수상, 1994)”

“새로운 연방주¹⁾출신의 직원은 안됨
(2002년 11월 서독의 한 기업체 직원채용 광고)”

현재 우리의 경우는 남북한 교역, 경제협력, 사회문화 협력, 인적 교류,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접촉’이 확대되는 단계에 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도 남북한 주민 간 상호 폴이해에

1) 새로운 연방주란 구 동독에 소속되어 있었던 주를 가리킴.

따른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3년 8월 대구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팀을 응원하러 온 북한 응원단이 보인 다음과 같은 행태와 이에 대한 남한주민의 반응이다. 이 사건에 대해 오마이뉴스(2003년 9월 3일자)에는, “북측 응원단이 예천에서 보여준 플래카드 칠거 사건은 또 하나의 문화적 충격이었다. 북측을 환영하기 위해 예천의 지역시민단체가 부착한 플래카드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비에 젖어 있다고 하여 이를 임의로 칠거한 사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것은 분명히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해관계가 침예하게 대립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외에도 남북이산가족 상봉 당사자들의 문제²⁾ 혹은 상봉을 주선하는 관계자들의 문제³⁾ 등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 차에 의한 갈등과 문제가 노정되었고,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2) 2004년 4월에 금강산에서 있었던 제9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체제에서 떨어져 살면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다가 남북한 적십자사의 주선에 의해 상봉하는 가족들이나 제3국에서 상봉하는 가족들 자체도 서로 할 말을 다 못하는 경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다.

3) 위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하여 남한 측 관계자의 별언이 북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지도자를 폄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작별상봉 자체를 몇 시간 동안 거부했던 일(연합뉴스, 2004년 4월 3일자)이 발생했었다. 이것은 남북한 양측의 문화심리적 차이에 기인한 것이고 이를 상호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착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음은 어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에서 경험한 애환의 일부인데, 여기에서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각자 나름대로의 인식을 하고 있어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002년 입국해 서울에 새평양순복음교회를 설립한 엄명희 전도사(여·45)는 “세상이 북한이탈주민을 얼마나 차갑게 대하는지 모른다”며 “50이 넘은 여성이 식당 주인에게 맞아 이빨이 부러진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통일이 되면 우리 고향에는 한국 놔온 빨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말하는 자유이주민이 많다”며, “돈 많은 미국교포는 우대하고 중국동포나 북한이탈주민은 천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뉴스엔조이, 2004년 11월 4일자).

이와 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기 시작한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전우택, 민성길, 이만홍, 이은설(1997)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의식구조 상의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북한이탈주민후원회(2001)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은 ‘편견과 차별’을 적지 않게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⁴⁾ 그런데, 이 두 연구의 결과가 얼핏

보면, 문제의 ‘옳고 그름’과 ‘좋음과 나쁨’을 구분하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보면, 문제에 대한 ‘원인 찾기’ 즉, 관점의 문제인 귀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남한주민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마찬가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주민들의 귀인 양식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측 주민들이 가진 귀인 양식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통일 문제, 북한이탈주민 문제, 그리고 귀인

귀인은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행동한 원인을 추론하거나 행동을 통해서 개인의 성격과 같은 속성을 추론하는 현상’을 말한다(한덕웅 등, 2005). 이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서는 과거 사건을 통한 미래 예측, 그에 따른 대처 행동, 귀인 주체의 감정과 태도 결정 욕구(한덕웅 등, 2005)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통일 문제와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가진 다음과 같은 점 때문에 이 분야에서 귀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통일 문제와 같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경험할 때, 다른 문화권 출신

4) 물론 이러한 연구가 현실적 차별이 아닌 지각(perceptual) 차원의 것이고,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만 한 연구이며, 비교 준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편견과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이주자인 조선족, 그리고 미국인, 일

본인, 동남아인 등을 비교 준거로 사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남한 내 지방 주민의 이주(예,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 등의 사례와 직접 비교해야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야만 북한이탈주민만의 독특한 처지에서 제기하는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처럼 익숙하지 않은 대상을 접할 때, 그리고 정답이 따로 없거나 확인할 수 없어서 객관적인 조건보다 파악 당사자의 주관적인 조건이 많이 작용할 수 있을 때 귀인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지적 용량이 부여될 때 귀인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Gilbert, 1995)는 점에서, 하루가 다르게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그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 즉, 인지적 처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인 통일 과정에서는 귀인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졌던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어 많은 변화를 일시에 보였던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rz(1992)는 ‘이제 동서 합류과정은 사람들의 일상세계를 점점 더 많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간의 적응 성과를 제시해야 하고,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방향 상실을 이겨내야 한다. 방향상실은 많다. 첫눈에 보아 어려움은 “오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매우 고통스러운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데에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기존 귀인 연구에서는 귀인 오류 현상마저도 중요한 현상으로서 다루어왔다(예, Jones & Harris, 1967). 이 현상에서는 상황요인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 측면을 중요시하는 기본적 귀인 오류가 주로 포함되었다. 그런데, 통일 현상은 무수히 많은 상황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기본적 귀인 오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Marz(1992)의 다음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동독출신자들과 관련하여 ‘분명히 동독인들은 “변화 속의 변화”와 더불어 남몰래 “적응 없이 합류하기” 카드나 “수상이 다 알아서 할 텐데”라

는 조커(카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가, 이제 자기들에게 계산서가 내밀어지자 놀라지도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동독출신자들의 과거 경력에 대한 평가절하 현상(이영란, 2005)이 나타났는데, 이는 동독이라는 환경 요인(상황)을 강조하고 개인의 성향 요인을 무시하는 현상으로서 과잉 상황 귀인 오류, 혹은 특출성 효과 현상, 나아가 ‘역(逆)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많은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깎아 내리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귀인 연구에서는 성취 여부를 많이 취급하여 왔다(예, Weiner, 1979). 이 성취 여부는 통일과 같이 많은 과제를 안고 있고 그 성취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에는 통일과 관련하여 귀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통일 이후에는 비중있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귀인 연구의 배경에는, 통일 독일 사회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고, 동독출신자와 서독출신자가 상호 간에 사회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인을 귀인 양식과 같은 것에서 찾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룹타 프로스트(2003)에 따르면, 현재 동독출신자는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훨씬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동독 문화의 고유성과 통일 후 성장해온 동독출신자들 간의 연대의식과 자의식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을 ‘2등 시민’으로 규정하게 하였다. 룹타 프로스트의 이러한 견해에 따라 판단해 본다면, ‘2등 시민’ 현상이나 여타의 사회 비통합적 현상에는 동독출신자들이 자신에게서 원인

을 찾기보다는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외부 귀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이 보이는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행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귀인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Strateman(1992)에 따르면, 이들 연구는 주로 도르트문트 경제심리연구소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에서 동독출신자들은 외부귀인을 많이 하고 서독출신자들은 내부귀인을 많이 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 점은 동독 출신자들이 그 동안 동독체제에서 저기서 누군가가 생각을 해야 한다' 혹은 '모든 인생의 결정적인 상황들에 우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식의 수동적 태도를 가지고 노선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자신의 결단에 의해 행동해야 할 통일 사회에서 부적응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 연구소에 의해 해석되었다. 반면에 서독출신자들은 '불쌍한 오씨(Ossi; 동쪽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망치고, 아무 것도 만들어 내지 못하며, 노력을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들을 동독출신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확증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통일은 자신들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승리자 증후군'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 이 연구소 측은 서독출신자들이 통일과 관련하여 과잉 내부 귀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Timmer, Westerhof, Dittmann-Kohli(2005) 연구에서도 동독 출신자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동조를 많이 경험해서 외부 귀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독 출신자들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강한 자기 결정과 개인주의를 경험해서 내부 귀인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의 귀인 연구는 긍정적인 성과

보다도 특히 부정적인 성과와 관련지은 것이 많았다(Kelsey, Kearney, Plax, Allen, & Ritter, 2004; Lazarus, 1991; Smith & Lazarus, 1993; Wong & Weiner, 1981 등).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예, Marz, 1992) 통일 상황에서는 많은 부정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Lazarus(1991)와 Smith 등(1993)에 따르면, 이 사건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부적 정서를 유발할 것인데, 이 부적 정서는 외부 사건을 귀인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그동안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귀인 현상은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예, Blaine & Williams, 2004; Johnston, Bristow, & Love, 2000). Johnston 등(2000)의 연구에 따르면, 고정관념에 해당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성향 귀인을 더 많이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통일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해 기준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은 성향 귀인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도르트문트 경제심리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이러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귀인 연구에서는 앞서의 정의처럼 원래 개인들이 가진 과학적인 인과 규명 방식을 밝히기 위해 시작되었지만(예, Heider, 1951; Weiner, 1979),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귀인은 점차 문화적 차이를 밝히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예, Morris & Peng, 1994). 이러한 관점의 이동은 한 문화에서 출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당 문화에 의해 장기간, 다른 방면에서 유사한 귀인 방식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가정한 것이다. 이 관점의 연구들 중 일부(예, Norenzayan, Choi, & Nisbett, 2002)는 원래 생활하던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이주한 사

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통일이 되든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이주하는 그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원래 문화에 적합한 귀인 양식을 지닐 가능성이 크고, 이와 관련된 심리적 현상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이라는 단기간에 성립되는 급격한 변화과정을 해당 주민들이 어떠한 귀인 방식을 통해 보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부적응, 개인 간 갈등과 대립, 사회적 분열 등이 발생되거나 강화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다수자(majority)와 소수자(minority)들이 귀인 양식에 따라 상대방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Capozza와 Rattazzi(1999)의 연구를 토대로 보면, 독일에서의 귀인방식의 차이가 동독출신자에 대한 ‘2등시민론’에 연결되는 것과 국내에서도 현재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2등시민론’이 거론되는 것(예, 윤인진, 2001)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인 현상의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이나 정책적 관점에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귀인 양식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혹은 북한주민에 대한 귀인 연구는 전무하였고, 남한주민과의 비교 연구 또한 전무하였다. 하지만 남한주민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크게 보아 남한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한 부류(심상옥, 김형일, 2004; Kim, Kim, & Choi, 2002 등)와 다른 문화와 비교하기 위해 연구한 부류(김혜숙, 1995; Choi & Nisbett, 1998 등)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을 토대로 남한주민의 귀인 양식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Choi 등(1998)의 연구에서 남한주민은 미국인들처럼 상황보다는 성향귀인을 더 많이 하였다. 하지만 남한주민은 미국인들보다 성향귀인을 덜 보이고 상황귀인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예, Markus & Kitayama, 1991; Shweder & Bourne, 1984)에서 동양 문화권에서는 성향 귀인보다 상황 귀인이 더 많다는 것과는 좀 상이한 것이다. 김혜숙(1995)의 연구에서도 한국 대학생들은 서구 대학생과 유사하게 자기기여 귀인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남한주민이 점차 전통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서구인과 유사한 형태의 귀인 양식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그 양식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첫째, 북한출신자들이 문화적으로 볼 때, 남한보다는 전통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예, 임현진, 1999) 때문에 남한의 이전 귀인 양식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과 동독이 모두 공산주의 사회였고, 남한과 서독이 모두 자본주의 사회이라는 체제적 공통점을 중심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동독출신자들이 외부귀인을 많이 하고, 서독출신자들이 내부귀인을 많이 하였는데, 이를 북한출신자들에게 적용하면 외부귀인을 할 가능성이 크고, 남한주민은 내부귀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이 보이는 ‘정부 탓’과 ‘남한주민 탓’과 관련지어 볼 때, 북한출신자들은 외부귀인을 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에만 국한해서 보면, 이들이 어찌되었든 간에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남한으로 이주를 결심하고

실행한 것을 보면 ‘메사를 자신들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 즉, 내부귀인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모두 같은 귀인양식을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일 문화권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유사한 귀인양식을 사용한다고 볼 가능성은 적지 않다. 단,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으로의 이주와 같이 운명을 거스르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북한주민들보다는 내부귀인을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 연구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도 북한주민들을 직접 연구하여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의 논의는 일단 북한이탈주민에 국한하여 볼 필요가 있다. 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는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북한주민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볼 수는 있다.

이외에도 Weiner(1979)가 제시한 안정 불안정 차원과 통제가능-통제불가능 차원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남한주민이나 북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또한, 이를 차원의 개념을 적용하여 추론해보기도 쉽지 않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이주해왔다는 사실이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북한주민들과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제 가능-통제불가능 차원과 관련해서 보면, 북한 체제에서는 상호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특성 때문에 동독출신자들처럼 ‘저기서 누군가가 생각을 해야 한다’ 혹은 ‘모든 인생의 결정적인 상황들에 우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떨쳐버리고 나온 사람들은 그와 반대의 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 사례는 북한이탈주민 K군의 부적응과

관련된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볼 때, 남한주민이 K군에게 실제로 무시하며 차별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K군 스스로의 과도한 자기고양편파(self-serving bias)와 자기방어편파(self-protection bias)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K군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북한이탈주민에게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의 책임을 남한주민에게 전가하는 외부귀인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한편 이들의 적응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귀인하는 내부귀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현재는 북한이탈주민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자신들의 부적응을 외부 귀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25세의 북한이탈주민 K군은 일자리를 쉽게 찾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자기자랑을 계속하며, 동시에 그만두는 이유에 대하여 “탈북자란 사실로 인해 나를 무시하며 그 차별로 인해 꾸준하게 다니기가 어렵다”면서 계속 다른 사람이나 남한 사회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이선윤, 2005).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에 대한 연구에서 방법론적 문제는 없는가? 통일 문제나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문제와는 별개로 이전에도 귀인 양식 측정에 대한 논란(권대훈, 1988; 최순영, 1987; Hall, French, Marteau, 2003 등)은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와 같이 남북한 통일 문제나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문제와 귀인 양식을 연관지어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론적 논쟁에 덧붙여서 이들의 특수한 상황 조건 즉, 남

북한 주민들이 서로 읽혀서 살아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성열 등 (2002)이 제시한 것은 만화형 남북한 귀인 양식 측정 방법이었다. 이들이 이러한 방법을 고안해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순영 (1987)이 제기한 바처럼, Heider 등의 기준 귀인 연구자들이 사회적 환경을 불변의 인과성과 보편적인 행위 작위 요인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실제는 사회적 귀인 양식을 파악해야만 귀인 당사자의 귀인 양식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Morris 등 (1994)의 연구에서 문화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도형의 움직임과 생물체의 움직임을 실험재료로 사용하여 비교한 바에 따르면 이들 간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귀인 대상을 사람으로 했을 경우에는 위의 사회적 귀인 양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결과를 낼을 수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게 된다.셋째, 북한이탈주민이 설문 형식의 연구에 대해 반응자 편파가능성을 매우 많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설문지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이러한 경향을 다른 연구 대상자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많이 보인다. 그 이유로는 Kuran이 동구권 주민들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위장 선호(preference of falsification)과 유사하게 북한이탈주민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려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독고순, 2001).⁵⁾뿐만 아니라 몇몇 북한이탈주민이 연구

5) 최봉대(2003)도 '탈북자 면접조사 방법'의 문제를 다루면서 북한이탈주민은 기본적인 신원확인에 대해서도 상당한 거부감을 표명하는데, 이는 이들의 현재 처지와 관련된 자기방어적 태도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316쪽). 또한 면접조사 시 북

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점에서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저 대충 적어주면 되지요.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본 연구자와의 대화내용 중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성열 등 (2002)이 개발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방법에는 남한과 북한 출신자들이 경험하는 주된 상황으로서, 직장 관련사항, 결혼 관련사항, 일 관련사항이 포함되었고, 그럼 형태의 자유 반응 방식을 적용했으며, 체계 전환에 따른 측면이 감안되었다.

위의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이 특정한 행동을 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 보일 수 있는 '남의 탓' 혹은 '상황 탓,' '핑계대기'와 같은 외부 귀인, 불안정 귀인, 통제불가능 귀인 양식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긍정과 부정 시나리오 간의 비교해 보는 것, 제시된 상황의 주인공이 남한주민일 때와 북한이탈주민일 때를 비교하는 것, 해당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검증한 시나리오와 검증을 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

한이탈주민이 내심으로 연구자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이야기 사이에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서 면접에 응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였다(324쪽). 마지막으로, 강연이나 면접조사 경험이 많고, 상황판단 능력이 뛰어난 북한이탈주민이 청중의 분위기나 면접자의 의도를 간파하고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절한 '맞춤형' 답변을 하는 경우도 배제 할 수 없다고 밝혔다(332쪽).

는 것으로써 가능하다. 이때 북한이탈주민은 긍정 시나리오나 부정 시나리오에 대해 모두 ‘남의 탓’을 반영한 것인 외부 귀인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 Weiner(1986)는 성공을 내부 귀인하면 자부심을 느끼고, 실패를 내부 귀인하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보았고, 실패에 대해 내부 귀인하고 통제가능 귀인하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보았으며, 내부 귀인하면서 통제불가능 귀인을 하면 우울을 경험하게 되고, 외부 귀인하고 통제가능 귀인을 하면 분노를 느끼며, 외부 귀인하고 통제불가능 귀인하면 연민이나 동정심을 느낀다고 보았다(한덕옹 등, 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자신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주인공인 북한이탈주민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정을 이입해서 좀 더 ‘남의 탓’을 남한주민에 비해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은 검증된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외부 귀인과 같은 상황 조건에 귀인할 가능성성이 크다.

남한주민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처럼 ‘남의 탓’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서독출신자처럼 자신들이 북한이탈주민보다 ‘한 수 위’라는 의식과 함께 ‘유사 승리자’ 증후군’현상을 보일 수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보

다는 외부 귀인, 불안정 귀인, 통제불가능 귀인 양식을 덜 보일 것이다.

이러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귀인 양식의 차이는 동일한 상황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 달리 지각하여 갈등 할 수 있는 토대라는 점에서 연구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양측 주민들의 귀인 양식의 차이를 규명하고, 이들 차이가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적용 문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방법

조사 대상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거주자 전집 목록 획득이 어렵고 이들이 신분 노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무선 할당 표집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고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변형된 스노우볼(snowball) 방식을 적용하여 표집하였다. 이들은 총 67명이었는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6명을 제외하고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전체(명)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대	2	1	2	4	9
20대	13	9	18	14	54
30대	15	9	8	10	42
40대	8	4	1	1	14
50대	6	1	0	3	10
전체(명)	44	24	29	32	129

최종적으로 61명(남자 29명, 여자 32명)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29세 6개월 ($SD = 9세 3개월$)이었고, 연령 범위는 18세에서 59세까지이며, 평균 정착 경과 기간은 약 3년 2개월($SD = 1년 8개월$)이었고 평균 북한 이탈 경과 기간은 약 4년 2개월($SD = 2년 3개월$)이었으며, 평균 해외 지체 기간은 약 2년 2개월($SD = 2년 1개월$)이었다(표 1 참조).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서 스노우볼 방식을 적용하여 70명을 조사하였다. 응답자 중 미완성 응답을 한 응답자 2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68명(남자: 44명, 여자: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9세 9개월 ($SD = 10세 9개월$)이었다. 조사는 기명으로 하였다.

측정 도구

생활 만족감 척도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5)이 5 문항의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구성했는데, 이는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는 방식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동직(1999)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남북한주민용 귀인 양식 척도

한성열 등(2002)이 기존에 사용되던 설문지 형 귀인 척도에서 다루어진 사건을 검토하고,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주된 사건을 검토하여 능력, 대인 수용력, 의사소통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요소가 실제로 작용하는 상황으로서 취직과 승진 상황, 결혼에 대한 부

모의 승낙 상황, 직장에서 업무 관련 전화 통화 상황을 정하여 구성한 척도이다. 이 척도에서 구성한 시나리오는 주인공(일반인, 북한 이탈주민) X 결과(긍정적, 부정적) X 검증 여부(미검증, 검증)라는 8가지이었고, 이를 내용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3가지 영역(능력, 대인수용력, 의사소통력) 차원을 포함시켜 총 24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응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즉, 이 24개의 개별적인 상황이 제시되면, Peterson, Semmel, von Baeyer, Abramson, Metalsky, 그리고 Seligman(1982)의 척도에서 사용한 응답 방식 즉, 개방형으로 그 귀인 내용을 말하게 하고, Weiner(1979)가 분류한 통제 소재내부 외부), 안정성(안정-불안정), 통제성(통제가능-통제불가능) 차원에서 2점 척도(1점 ~ 2점)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각 점수는 1.5점 이상으로 높을수록 각 차원에서 우측 즉, 외부 귀인, 불안정 귀인, 통제 불가능 귀인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시나리오가 아닌 긍정 시나리오와 부정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의 Cronbach's α 를 분석하였다. 긍정 시나리오의 내부-외부 차원은 .60, 안정-불안정 차원은 .84, 통제가능-통제불가능 차원은 .77이었고, 부정 시나리오의 내부-외부 차원은 .58, 안정-불안정 차원은 .76, 통제가능-통제불가능 차원은 .70이었다.

조사 절차

본 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신규 제작된 만화형 귀인 측정 도구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조사자와 조사대상자 간의 1:1 면접형으로 진행하였다. 이

때 만화형 귀인 상황은 14.1인치 노트북 PC 화면에 제시되었고, 연구대상자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제시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사자가 하였다. 이러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이나 남한주민이나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응답 내용에 대해 전후 맥락에 따라 일치되지 않는 측면 즉, 귀인 내용을 개방형으로 응답한 내용과 3개 차원에서의 응답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한번 더 조사자가 조사대상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하였다. 그 이외의 설문지형 측정 도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개인별로 조사 현장에서 작성하도록 하였다.

결과

먼저 전체적으로 귀인 양식 면에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표 2 참조). 그 결과,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

민은 긍정 시나리오와 부정 시나리오 모두에 대해 모든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긍정 시나리오에 대해 양측을 비교해 보면, 양측이 모두 내부 귀인 경향(남한 $M = 1.33$, 북한 $M = 1.47$)을 보였지만 그 경향은 남한 주민이 더 높았다. 그리고 남한주민은 안정 귀인 경향($M = 1.24$)을 보였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불안정 귀인 경향($M = 1.65$)을 보였다. 또한, 양측 주민은 통제가능보다는 통제불가능 귀인 경향을 모두 보였으나 남한주민($M = 1.92$)이 더 높았다.

부정 시나리오에서도 긍정 시나리오에 대해 양측 주민이 보인 경향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단, 내부-외부 차원에서만 남한주민($M = 1.51$)이 북한이탈주민($M = 1.43$)보다 외부 귀인 성향을 보였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긍정 시나리오와 부정 시나리오를 직접 비교해 보았는데, 남한주민은 부정 시나리오보다 긍정 시나리오에 대해 내부 귀인 ($M = 1.33$ 대 1.51)을

표 2. 긍정과 부정 시나리오에 따른 귀인 양상

차원	집단	긍정 시나리오	부정 시나리오	<i>paired-t</i>
내부-외부	남한주민	1.33(.19)	1.51(.19)	-5.78***
	북한이탈주민	1.47(.18)	1.43(.16)	1.54
	<i>t</i>	-4.01 ***	2.55 *	
안정-불안정	남한주민	1.24(.14)	1.24(.18)	-1.04
	북한이탈주민	1.65(.23)	1.58(.20)	2.16 *
	<i>t</i>	-11.97 ***	-9.53 ***	
통제가능-통제불가능	남한주민	1.92(.14)	1.94(.11)	-.62
	북한이탈주민	1.81(.20)	1.75(.18)	2.95 **
	<i>t</i>	3.24 **	6.51 ***	

* $p < .05$, ** $p < .01$, *** $p < .00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모든 차원은 2점 척도임.

유의미하게 많이 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은 부정 시나리오보다 긍정 시나리오에 대해 불안정 귀인($M = 1.65$ 대 1.58)과 통제불가능 귀인($M = 1.81$ 대 1.75)을 많이 하였다.

다음은 해당 속성 즉, 능력, 대인관계, 그리고 의사소통력에 대해 검증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판단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표 3 참조). 여기서는 긍정 시나리오와 부정 시나리오 각각에서 제시된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감정이입을 하여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긍정 시나리오에서 남한주민은 북한 주인공인 경우보다 남한 주인공인 경우에서 내부 귀인($M = 1.28$ 대 1.56), 안정 귀인($M = 1.16$ 대 1.43) 경향을 보였고, 북한이탈주민은 내부 귀인($M = 1.43$ 대 1.55)의 경향만을 보였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비교했을 때는, 북한 주인공인 경우에 내부-외부 차원과 통제가능-통제불가능

차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나머지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남한주민은 긍정의 남한 주인공 시나리오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보다 내부 귀인($M = 1.28$ 대 1.43), 안정 귀인($M = 1.16$ 대 1.68), 불안정 귀인($M = 1.91$ 대 1.84) 경향을 보였고, 긍정의 북한 주인공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안정 귀인($M = 1.43$ 대 1.67) 경향을 더 보였다.

부정 시나리오에서 남한주민은 북한 주인공인 경우에 비해 남한 주인공인 경우에 안정 귀인($M = 1.20$ 대 1.33), 통제불가능 귀인($M = 1.98$ 대 1.87) 경향을 더 보였고, 북한이탈주민은 내부 귀인($M = 1.24$ 대 1.44), 불안정 귀인($M = 1.60$ 대 1.47), 통제불가능 귀인($M = 1.80$ 대 1.69) 경향을 보였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비교했을 때는, 북한 주인공인 경우에 대한 내부-외부 차원에서만 유

표 3. 비검증 시나리오에 대한 남북한 출신 주인공별 귀인 양상

차원	집단	긍정 시나리오			부정 시나리오		
		남한 주인공	북한 주인공	paired-t	남한 주인공	북한 주인공	paired-t
내부-외부	남한주민	1.28(.25)	1.56(.34)	-5.38***	1.47(.30)	1.52(.31)	-.80
	북한이탈주민	1.43(.20)	1.55(.27)	-3.36***	1.24(.28)	1.44(.28)	-4.02***
	t	-3.33***	.33		4.95***	1.48	
안정-불안정	남한주민	1.16(.20)	1.43(.29)	-5.45***	1.20(.26)	1.33(.26)	-2.81**
	북한이탈주민	1.68(.30)	1.67(.28)	.26	1.60(.25)	1.47(.29)	2.96**
	t	-11.36***	-4.73***		-8.64***	-2.75**	
통제가능- 통제불가능	남한주민	1.91(.20)	1.92(.20)	-.17	1.98(.11)	1.87(.22)	3.46***
	북한이탈주민	1.84(.26)	1.85(.26)	-.29	1.80(.23)	1.69(.26)	3.43***
	t	1.98*	1.76		5.74***	4.14***	

* $p < .05$, ** $p < .01$, *** $p < .00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모든 차원은 2점 척도임

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남한주민은 부정의 남한 주인공 시나리오에 대해 낮은 내부 귀인($M = 1.47$ 대 1.24), 안정 귀인($M = 1.20$ 대 1.60), 통제불가능 귀인($M = 1.98$ 대 1.80) 경향을 보였고, 부정의 북한 주인공 시나리오에 대해 안정 귀인($M = 1.33$ 대 1.47), 통제불가능 귀인($M = 1.87$ 대 1.69) 경향을 보였다.

다음은 앞서의 비검증 상황이 아닌 검증된 시나리오에 대해 긍정 시나리오와 부정 시나리오 각각에서 제시된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따른 귀인 양상을 확인하였다(표 4 참조). 긍정 시나리오에서 남한주민은 북한 주인공인 경우보다 남한 주인공인 경우에서 내부 귀인($M = 1.12$ 대 1.38), 안정 귀인($M = 1.07$ 대 1.31) 경향을 보였고, 북한이탈주민은 그 어떠한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비교했

을 때는, 북한 주인공인 경우에 내부-외부 차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한주민은 긍정의 남한 주인공 시나리오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보다 내부 귀인($M = 1.12$ 대 1.43), 안정 귀인($M = 1.07$ 대 1.63), 불안정 귀인($M = 1.92$ 대 1.84) 경향을 보였고, 긍정의 북한 주인공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안정 귀인($M = 1.31$ 대 1.63), 통제불가능 귀인($M = 1.93$ 대 1.77) 경향을 보였다.

부정 시나리오에서 남한주민은 북한 주인공인 경우에 비해 남한 주인공인 경우에 내부 귀인($M = 1.40$ 대 1.69), 안정 귀인($M = 1.07$ 대 1.36), 통제불가능 귀인($M = 1.97$ 대 1.94) 경향을 더 보였고, 북한이탈주민은 불안정 귀인($M = 1.67$ 대 1.57), 통제불가능 귀인($M = 1.84$ 대 1.68) 경향을 보였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비교했을 때는 모든 차원에

표 4. 검증 시나리오에 대한 남북한 출신 주인공별 귀인 양상

차원	집단	긍정 시나리오			부정 시나리오		
		남한 주인공	북한 주인공	paired-t	남한 주인공	북한 주인공	paired-t
내부-외부	남한주민	1.12(.19)	1.38(.32)	-5.88 ***	1.40(.23)	1.69(.32)	-6.16 ***
	북한이탈주민	1.43(.22)	1.45(.27)	-.56	1.50(.26)	1.54(.32)	-.63
	t	-8.31 ***	-1.28		-2.12 *	2.65 **	
안정-불안정	남한주민	1.07(.15)	1.31(.28)	-6.04 ***	1.07(.14)	1.36(.30)	-7.78 ***
	북한이탈주민	1.63(.25)	1.63(.29)	.15	1.67(.26)	1.57(.29)	2.41 *
	t	-15.85 ***	-6.01 ***		-16.68 ***	-4.01 ***	
통제가능- 통제불가능	남한주민	1.92(.17)	1.93(.17)	-.65	1.97(.11)	1.94(.16)	1.35
	북한이탈주민	1.84(.22)	1.77(.26)	1.74	1.84(.22)	1.68(.28)	4.02 ***
	t	2.64 **	4.22 ***		4.11 ***	6.40 ***	

* $p < .05$, ** $p < .01$, *** $p < .00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모든 차원은 2점 척도임.

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남한주민은 부정의 남한 주인공 시나리오에 대해 내부 귀인($M = 1.40$ 대 1.50), 안정 귀인($M = 1.07$ 대 1.67), 통제불가능 귀인($M = 1.97$ 대 1.84) 경향을 보였고, 부정의 북한 주인공 시나리오에 대해 외부 귀인($M = 1.69$ 대 1.54), 안정 귀인($M = 1.36$ 대 1.57), 통제불가능 귀인($M = 1.94$ 대 1.68) 경향을 보였다.

각 상황에 필요한 요소를 이미 검증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의 차이가 귀인 양상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표 5와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긍정 시나리오에서 남한주민은 남한주인공이었을 때($M = -.15$)보다 북한주인공이었을 때($M = -.28$) 검증된 경우에 더 내부 귀인 경향을 띠었다. 이 경향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유사하였다($M = .01$

대 -.09). 또한, 남한주민은 긍정 시나리오의 남한 주인공이었을 때 북한이탈주민보다 내부 귀인 경향($M = -.15$ 대 .01)이 많았고, 북한 주인공이었을 때 북한이탈주민보다 외부 귀인 경향($M = -.01$ 대 -.08)이 더 많았다.

부정 시나리오에서 남한주민은 모든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내부·외부 차원에서만 주인공이 누구이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남한주민은 남한주인공이었을 때보다 북한주인공이면서 검증된 경우에 더 외부 귀인 경향($M = -.08$ 대 .15), 더 안정 귀인 경향($M = -.15$ 대 .07), 더 통제불가능 귀인 경향($M = -.01$ 대 .04)을 보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인공이었을 때보다 북한주인공이면서 검증된 경우에 더 내부 귀인 경향($M = .26$ 대 .10)을 보였다. 그리고 남한주민은 부정 시나리오의 남한 주인공이었을 때 북한이탈주

표 5. 시나리오의 검증 여부에 따른 차이 점수

차원	집단	긍정 시나리오			부정 시나리오		
		남한 주인공	북한 주인공	paired- <i>t</i>	남한 주인공	북한 주인공	paired- <i>t</i>
내부·외부	남한주민	-.15(.26)	-.28(.28)	2.39 *	-.08(.26)	.15(.32)	-3.69 ***
	북한이탈주민	.01(.20)	-.09(.26)	2.29 *	.26(.40)	.10(.29)	2.66 **
	<i>t</i>	-3.76 ***	1.72		-5.36 ***	.96	
안정·불안정	남한주민	-.10(.26)	-.11(.24)	.39	-.15(.23)	-.07(.32)	-3.67 ***
	북한이탈주민	-.05(.23)	-.04(.21)	-.12	.05(.26)	.10(.24)	-.63
	<i>t</i>	-1.24	-1.62		4.48 ***	-1.13	
통제가능- 통제불가능	남한주민	.01(.20)	-.01(.20)	.00	-.01(.10)	.04(.26)	2.39 *
	북한이탈주민	.01(.10)	-.08(.25)	1.57	.06(.20)	-.01(.29)	.94
	<i>t</i>	.46	2.34 *		-1.57	1.43	

* $p < .05$, ** $p < .01$, *** $p < .001$.

차이 점수는 검증 점수에서 비검증 점수를 뺀 것임(예를 들어 내부·외부 차이 점수가 클수록 외부 귀인 경향을 더 보이는 것을 의미함).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민보다 내부 귀인 경향($M = -.08$ 대 .26), 안정 귀인 경향($M = -.15$ 대 .05)을 보였다.

생활만족도에 따라 귀인 양식이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하였다(표 6 참조). 여기서 생활만족도는 3분위(2.60점 이하와 3.20점 이상 기준)로 구분하였다. 먼저, 남한주민은 생활만족도의 수준에 따라 그 어느 차원에서

도 귀인 양식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은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해 내부-외부 귀인 차원($t = -2.48$, $p < .05$)과 안정-불안정 귀인 차원($t = -2.15$, $p < .05$)에서, 남한 주인공 시나리오에 대해 안정-불안정 귀인 차원($t = -2.80$, $p < .05$)에서, 북한 주인공 시나리오에 대해 안정-불안정 귀인 차원

표 6. 생활만족도에 따른 시나리오별 귀인 경향에 대한 차이 분석

차원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저 생활만족도 (n=23)	고 생활만족도 (n=27)	<i>t</i>	저 생활만족도 (n=24)	고 생활만족도 (n=13)	<i>t</i>
긍정 내부-외부	1.35(.22)	1.29(.18)	1.01	1.42(.14)	1.54(.13)	-2.48*
긍정 안정 불안정	1.23(.14)	1.23(.13)	.14	1.62(.23)	1.78(.19)	-2.15*
긍정 통제 비통제	1.93(.16)	1.95(.09)	-.66	1.81(.21)	1.85(.17)	-.50
부정 내부-외부	1.49(.19)	1.50(.22)	-.34	1.41(.16)	1.46(.14)	-.97
부정 안정 불안정	1.28(.19)	1.21(.18)	1.04	1.51(.18)	1.63(.23)	-1.79
부정 통제 비통제	1.91(.14)	1.96(.09)	-1.41	1.73(.22)	1.70(.17)	.39
남한 주인공 내부 외부	1.35(.15)	1.31(.14)	.87	1.37(.09)	1.42(.13)	-1.46
남한 주인공 안정-불안정	1.14(.13)	1.12(.12)	.59	1.57(.11)	1.70(.16)	-2.80**
남한 주인공 통제-비통제	1.93(.17)	1.96(.09)	-.88	1.78(.21)	1.80(.15)	-.37
북한 주인공 내부 외부	1.49(.26)	1.49(.26)	.01	1.47(.18)	1.58(.26)	-1.55
북한 주인공 안정-불안정	1.36(.26)	1.32(.21)	.53	1.56(.20)	1.72(.24)	-2.12*
북한 주인공 통제-비통제	1.90(.17)	1.97(.07)	-1.51	1.76(.21)	1.74(.15)	.26
검증 내부-외부	1.38(.17)	1.37(.18)	.29	1.48(.16)	1.46(.15)	.52
검증 안정 불안정	1.23(.16)	1.16(.13)	1.65	1.57(.15)	1.74(.18)	-3.12**
검증 통제 비통제	1.92(.13)	1.97(.05)	-1.71	1.75(.20)	1.77(.18)	-.29
비검증 내부 외부	1.44(.17)	1.43(.18)	.08	1.35(.13)	1.54(.14)	-4.24***
비검증 안정-불안정	1.27(.17)	1.26(.15)	.17	1.57(.12)	1.67(.19)	-2.14*
비검증 통제-비통제	1.91(.16)	1.93(.11)	-.49	1.79(.20)	1.78(.16)	.20

* $p < .05$, ** $p < .01$, *** $p < .00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t = -2.12, p < .05$)에서, 검증된 시나리오에 대해 안정-불안정 귀인 차원($t = -3.12, p < .01$)에서, 비검증 시나리오에 대해 내부-외부 귀인 차원($t = -4.24, p < .001$)과 안정-불안정 귀인 차원($t = -2.14, 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는 모두 생활 만족도가 낮은 경우 내부 귀인, 안정 귀인 경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는 통일 독일에서 동서독 출신자들이 상호 간 이해 부족으로 사회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을 주목 하여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각기 해당 원문화에 의해 영향받아서 가진 고유한 귀인 양식을 밝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적응력 제고와 향후 통일 완성도 제고를 꾀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양측 주민들이 상호 간의 귀인 양식에 따라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통일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여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어우러지는 상황과 향후 통일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의 원형적인 문제를 시나리오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동일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귀인 양식의 차이가 상당히 뚜렷하고 비교적 일관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표 2~6 참조). 이것으로 볼 때, 양측 주민이 귀인 양식 면에서 그동안 각 체제와 문화에 의해 강하게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양측 주민들이 접촉 이후에도 상당기간 이 차이에 의한 상호 간 오해와 갈등이 발생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일 독일에서도 이러한 귀인 양식의 차이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었다는 보고(Timmer 등, 2005)가 있기 때문에 더 우려되는 것이다.

둘째,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측 주민이 전체적으로 내부귀인을 한다는 점과 통제불가능성 귀인을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면을 보였다. 특히, 남한주민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시나리오에 대해 내부귀인 경향을 보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낸 시나리오에 대해 약한 외부귀인 경향을 보였는데, 북한이탈주민은 두 시나리오 모두에 대해 내부 귀인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Choi 등(1998)이 밝힌 결과와도 거의 일치하는 것이며, 북한이탈주민도 남한주민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양측 주민의 귀인 양식이 양적으로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날뿐 질적으로는 같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남한과 북한의 문화와 심리의 이질성 논란(예, 채정민, 이종한, 2004)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질성이 질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안정-불안정 귀인 경향 면에서는 남한주민은 안정 귀인을, 북한이탈주민은 불안정 귀인을 일관되게 많이 하고 있다(표 2~6 참조)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문화와 심리의 동질성-이질성 논란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단언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며, 나아가 근본적으로 동질적인 면과 이질적인 면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출신지가 어디인가에 따라서도 양측 주민의 귀인

양식이 많이 달라졌다. 특히, 일반적인 비검증 부정 결과 시나리오에서 남한주민이 내부 외부 귀인 차원에서만 유의미한 주인공 출신지 차이가 없었을 뿐 나머지 모두에서 이러한 차이가 드러났다(표 3 참조). 이 점은 양측 주민 간의 인식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고정 관념과 편견이 작용할 여지가 분명히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귀인 양식의 차이는 남한주민이나 북한 이탈주민 한편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양측 주민 모두에게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흔히들 앞서의 K 군과 같이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해 더 많은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차별한다’고 생각해서 이에 동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남한주민 못지않게 북한이탈주민도 남한주민과 자신들을 분리해서 다르게 생각하되,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능력에 대한 검증 부분에서도 독특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즉, 보통의 경우에는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시나리오에 비해 개인의 성향 즉, 내부 귀인과 안정귀인을하게 되는 것이 이치인데, 표 5를 보면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은 긍정 시나리오에서 주인공이 남한출신자이든 북한출신자이든 관계없이 내부 귀인 경향을 보였는데, 부정 시나리오에서는 대체로 외부 귀인 경향을 보였다. 여기서 특히, 주인공이 북한출신자인 경우($M = .15$ 와 $M = .10$)으로 모두 외부 귀인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해서 능력을 펼치는 과정에서 실패하

는 것은 본인의 요인보다 그 사람이 처해있는 상황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양측 주민 모두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서의 긍정 결과에 대해 비검증 시보다 검증 시 내부 귀인 경향이 커지는 것은 이주해서 능력을 펼쳐서 성공하면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요소가 크다고 양측 주민 모두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남의 탓’을 하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주민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이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향후 통일 시대에서 북한출신자가 모두 이러한 점을 내세워 본인의 문제로 야기된 문제까지 방어하려한다면 문제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통일 이후 실업자가 동독출신자일 경우 최대 20%(이태욱, 2001)까지 유탁했었던 것처럼 통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거나 취직하지 못할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모두 통일 상황에 귀인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서 정부와 사회에 대해 과도한 책임 전가와 본인의 면책을 노리는 사회문제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안정-불안정 차원과 통제가능 통제불가능 차원에서도 남한주민만이 부정 시나리오에 대해 검증 안 된 상태와 검증 된 상태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다른 요인보다 내부 외부 차원에 대한 인식이 제일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으로서 ‘남의 탓’ 문제가 이 차원을 중심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귀인 양식이 자신의 심리적 적응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표 6의 분석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여기에서 남한주민은 그 어떠한 시나리오 차

원에서 생활만족도의 차이에 의한 귀인 양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북한이탈주민은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 세부 내용도 중요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생활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적응 상태에 따라 귀인 양식이 다를 수 있거나 그 반대로 귀인 양식이 달라져서 생활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귀인 양식이 원 문화를 떠나도 잘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전자의 가능성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한주민은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자신과 출신이 같은 경우, 긍정 시나리오 이든 부정 시나리오이든 내부, 안정, 통제불가능 귀인 경향을 보였고, 이것은 검증 여부와 상관없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를 Weiner (1986)가 밝힌 바에 따라 그 의미를 살펴보면 ‘내부 귀인하면서 통제불가능 귀인을 하면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우울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자신이 처한 상황 그 자체에 대해 귀인 양식을 측정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시나리오로 제시된 것이어서 100% 자신의 상황을 감정이입했다고 볼 수 없고, 남한주민은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는 3.01점으로 보통이어서 꼭 우울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내부, 불안정, 통제불가능 귀인 경향을 보였고, 남한주민과 유사하게 다른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을 그대로 보였다. 단, 이들의 생활만족도는 2.78점으로서 보통 이하 이어서 Weiner(1986)가 밝힌 점과 어느 정도는 일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막연히 생각해오던 북한이탈주민의 인지적 측면 중에서 특히 귀인

양식에 대한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측정도 만화형 귀인 방식을 써서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보이는 무선 응답과 같은 반응 편파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첫째, 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1:1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연구 방식 때문에 좀 더 많은 유효 표본을 획득하지 못해 일반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집단 조사 형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 둘째, 귀인 양식의 대상을 타인에게만 국한하여 귀인 양식을 파악했는데, 이것은 조사 대상자의 자신 문제에 대한 귀인 양식을 파악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나 남한주민과 같은 방식으로 주인공을 제시하여 조사 대상자가 본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자신 문제에 대한 귀인 양식을 드러낼 수 있지만 이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셋째, 검증 시나리오 제시 상황에서 성공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검증도 포함시키는 측정도구이었으면 성공과 실패를 균형있게 검증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향후 이 분야의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인 양식을 다른 인지적 측면 즉, 사후가정사고(counterfactual thinking)과 같은 사회적 추론과 판단 등과 관련지어 살펴보는 것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후과정사고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오게 되면 현재 조건에서는 다시는 북한 땅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

는 것이므로 이 귀인 양식과 관련지어 연구해 볼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귀인 양식 자체가 문화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문화이해지와 같은 문화학습 도구뿐만 아니라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서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각종 학습 과정에 어떻게 하면 양측 주민의 독특한 귀인 양식과 공통적 귀인 양식 내용을 더 많이 포함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바대로 통일 이후 동서독 출신자들이 자기방어의 일환으로 귀인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아방어기제와 같은 주제와도 관련지어 연구해서 현재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혹은 통일 시기에 남한출신자와 북한출신자 간의 갈등과 방어기제의 문제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대훈 (1988). 귀인과정의 측정: 방법 및 문제점. *교육학논총*, 7, 1-14.
-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 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뉴스엔조이 (2004년 11월 4일자). 탈북자, 어떻게 살고 있는가.
- 독고순 (2001). 탈북주민의 가치정향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 35(1), 149-174.
- 롭타 프로스트 (2003). 동서독의 이질감에 대한 성찰. 김누리, 노영돈 편, *통일과 문화*. 서울: 역사비평사.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1). <http://www.dongposarang.or.kr>
- 심상옥, 김형일 (2004). 귀인훈련이 지체부자유아의 학습된 무력감과 통제소재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6(2), 1-24.
- 연합뉴스 (2004년 4월 3일자). 금강산 관광 우여곡절 끝에 작별상봉 열려.
- 오마이뉴스 (2003년 9월 11일자). 북한 응원단이 남한사회에 남기고 간 것.
- 윤인진 (2001). '탈북자'는 2등 국민인가? *당대비평*, 16, 222-255.
- 이선운 (2005). 수료 후 심리적 부적응 사례와 몇 가지 제언. 2005 하나원 심리프로그램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하반기 워크샵. 55-59.
- 이영란 (2005). 통일 이후 동독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포커스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1), 137-165.
- 이태욱 (2001). *독일통일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영향: 두 개의 독일*.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임현진 (1999). 남북한 통합의 사회문화적 접근: 의의, 현실 및 모색. 이정복, 신우희, 이승훈, 임현진, 김광억, 이장호, 박삼옥, 조홍식, 강현두, 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99-143.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우택, 민성길, 이만홍, 이은설 (1997). 북한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1), 145-161.
- 채정민, 이종한 (2004).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문화이질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79-101.
- 최봉대 (2003). 탈북자 면접조사 방법.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저, *북한연구 방법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 최순영 (1987). 귀인이론의 비평적 고찰 및 개인-사회 수준으로의 확대 모형 제안. *사회심리학연구*, 3(2), 281-295.
- 한덕웅, 성한기, 강혜자, 이경성, 최훈석, 박근석, 김금미, 장은영 (2005).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 한성열, 이종한, 문승범, 류충호, 박순관, 한평민 (2002). 남북한 주민용 귀인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남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2002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 Blaine, B., & Williams, Z. (2004). Belief in the controllability of weight and attributions to prejudice among heavyweight women. *Sex roles*, 51 (1), 79-84.
- Capozza, D. & Rattazzi, A. M. M. (1999). Stereotypes and attribution processes in a multi-ethnic Italian province.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9, 231-235.
- Choi, I., & Nisbett, R. E. (1998). Situational salience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orrespondence bias and the actor-observer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949-960.
- De Jong, P. F., Koomen, W., & Mellenburgh, G.J. (1988). Structure of causes for success and failure: A 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of preference judg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718-725.
- Diener, C. I., & Dweck, C.S. (1978). An analysis of learned helplessness: continuous changes in performance, strategy, and achievement cognitions following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451-462.
- Gilbert, D. T., & Malone, P. S. (1995). The correspondence bias. *Psychological Bulletin*, 117, 21-38.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Johnston, L., Bristow, M., & Love, N. (2000). An investigation of the link between attributional judgments and stereotype-based judgmen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551-568.
- Jones, E. E., & Harris, V. A. (1967). The attribution of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 1-24.
- Kelsey, D. M., Kearney, P., Plax, T. G., Allen, T. H., & Ritter, K. J. (2004). College Students' Attributions of Teacher Misbehaviors. *Communication Education*, 53 (1), 40-55.
- Kim, K., Kim, J-Y, & Choi, S-C. (2002). Palza as self-reflective mode and attributional dimension for Korean women's rugged life story.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7(2), 17-29.
- Lazarus, R.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rkus, H.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41, 954-969.
- Marz, L. (1992). 변화과정의 성향변화 비용: 정신적인 방향상실이 경제적 문제가 되는가. 통일원 편, 통일된 독일 통합과 체제 전환. 서울: 통일원.
- Morris, M.W.,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949-971.
- Norenzayan, A., Choi, I., & Nisbett, R.E. (2002). Cultu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ocial inference: Evidence from behavioral predictions and lay theories of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09-120.
- Peterson, C., Semmel, A., von Baeyer, C., Abramson, L. Y., Metalsky, G. I. & Seligman, M. E. P (1982).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 287-300.
- Shweder, R.A., & Bourne, E.J. (1984). Does the concept of the person vary cross-culturally? In R.A. Shweder & R.A. LeVine (Eds.), *Cultural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pp.158-19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C.A., & Lazarus, R. (1993). Appraisal components, core relational theme, and the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7, 233 -269.
- Strateman, I. (1992). *신연방주에서 경제적 도양의 심리적 조건들*. 통일원 편역, 독일통합과 체제전환. 서울: 통일원.
- Timmer, E., Westerhof, G. J., & Dittmann-Kohli, F. (2005). "When looking back on my past life I regret...": Retrospective regret in the second half of life. *Death Studies*, 29, 625-644.
- Weiner, B. (1986). *An attributional theory of motivation and emotion*. NewYork: Springer.
- Weiner, B. (1979). A theory of motivation for some classroom experi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3-25.
- Wong, P. T., & Weiner, B. (1981). When people ask "why" questions, and the heuristics of attributional 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650-663.

1 차 원고 접수일 : 2006. 2. 10

최종 원고 접수일 : 2006. 6. 14

Attribution Styl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 Research through Comparison with South Korean People

Jung-Min Chae

Korea University

This study is performed to identify attribution style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more accurately. For this purpose, cartoon-form method designed to measure attributions is used and total 129 subjects including comparison group of South Koreans are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Interestingly, the result showed that two groups had similar and different attribution styles at the same time. That is, there is a common aspect in using internal attributions more in general, but there is also a different aspect in that South Koreans used internal attribution much more. These tendencies emerged similarly at the controllable and uncontrollable attribution dimension. However,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South Koreans mainly used stable attribution and the North Korean Defectors used unstable attribution at the stable and unstable attribution dimension. And, the attributional styles of both koreans appeared consistently in a variety of scenarios. Finally, there was the stronger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life satisfaction and attributional styles.

key words : culture, psychological adaptation, North Korean Defector, attribution, reunification